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 시상중계 ⑨

주제 : 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사는 법

# 늘 내 감정에 속지 않는 주인이 되자



지상 백고좌 (총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는 말은 깨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내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된다는 일은 쉽기로 말하면 참으로 쉬운 일일수 있고 어렵기로 말하면 참으로 어려운 일 중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육신, 즉 감각의 덩어리로 된 몸통이 먹음 것을 달라고 하면 넣어주고 성을 내달라고 하면 화를 불같이 내주는 등 감정이 해달라는 대로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사는 시간이 많지, 참마음이 주인되어 행동을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팔만사천 번뇌 모든 욕심과 진심과 어리석은 망상번뇌가 우리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내 마음의 주인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임제 스님은 가는 곳마다 주인 되는 세계를 "수행자가 부처를 구하면 부처를 잃게 되고 조사를 구하면 조사를 잃게 되고 도를 구하게 되면 도를 잃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주인노릇을 해야 되고 내 주인이 어떠한 자재인가를 잘 표현한 세계입니다.

모양이 있거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거나 무슨 색깔이 있다면 그것은 주인자리가 아닙니다. 허공은 증상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허공에는 아무런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기 때문에 이 조계사 법당은 물론 많은 대중들이 다니거나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말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허공에 모양이 있거나 색깔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 놓고 허공에 의지하고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허공처럼 모양되지 않는, 진실된 마음자리를 찾으려는 혜국 스님의 법문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있는 대중들.

다. 허공은 먹물을 끼어도 물들지 않고 침을 뱉어도 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오염되지 않는 자리를 주인된 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몸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주인공, 법문을 들을 줄 알고, 눈을 뜰 줄 알도록 하는 소소영양한 그 기운이 내 마음의 주인공일진대 주인을 내버려두고 감정이 하자는대로, 도적놈이 주인노릇 하도록 기반두어서는 안됩니다.

마음부처라고 하는 법당에 내 스스로 감정과 욕망과 도적놈을 불러들여 주인노릇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일은 부처님을 믿는 제자라던가 어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공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돌아보십시오. 얼마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山空靜夜坐無言(산당정야좌무언) 산당의 고요한 밤에 말없이 앉았으니 寂寂寥寥本自然(적적요요본자연) 조용하고 조용하여 본래의 모습이다. 何事西風動林野(하사서풍동림야) 서풍은 어찌하여 수풀을 흔드느냐 一聲寒雁疾長天(일성한안리장천) 一聲寒雁疾長天(일성한안리장천)

## 눈에 안보이는 허공이 바로 '주인자리'

## 회두는 찾아야 할 대상 아닌 바로 나 자신

기러기 한 소리가 장천을 울리도다.

여러분의 눈으로 자신의 눈이 보입니까, 안보입니까? "안보입니다." (대중)

그러면 마음을 갖고 마음을 보면 마음이 보입니까? "안보입니다." (대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찾으려고 하거든요.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찾는 내가 있고 찾는 대상이 따로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눈을 보지 못하듯이 마음이라는 것은 찾는 주인과 찾는 대상이 나뉘진 상태가 아니고 주와 객이 분리되기 이전 세계입니다. 찾으려고 하면 이미 잃어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를 구하면 부처를 잃게 되고 조사를 구하면 조사를 잃게 됩니다. 또 도를 구하면 도를 잃는 것입니다.

요즘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급합니다. 빨리 도를 이

루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도를 그렇게 빨리 얻을 수 있으면 누가 얻지 못했겠습니까.

또 "요즘 참선을 하는데, 이리이러한 것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길 원하는 마음이 아직 남았으니 보이는 겁니다. 그건 그림자지 실상이 아니에요. 보고 싶은 마음의 그림자가 밖에 나가서 황금색으로도 보이고 부처님으로도 보이고 그러는 것이니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회두가 무엇입니까? '정전백수자(庭前柏樹子)' 라는 회두가 있는데, 회두가 정전백수자 이 다섯 글자입니까? 아니면 조주 스님이 '정전백수자' 하기 전 그 마음 속에 숨겨진 의(意), 뜻입니까?

말 나온 다음에 것은 회두가 아닙니다. 그 말 나오기 전, 조주 스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여러분 마음과 내 마음이 들어난 상태를 회두라고 합니다. 이 회두는 들어가고 나오는 지리가 아니거든요. '공' 하면 전해질 소리인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말없이 잣나무' 라는 소리가 나오기 이전 조주 스님의 그 뜻이 회두입니다. 의심을 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조주 스님들이 이미 보

여주었으니 마음의 눈을 떠야 할 것이 아닙니까. 눈 뜨는 방법이 의정(意正)의 의(意)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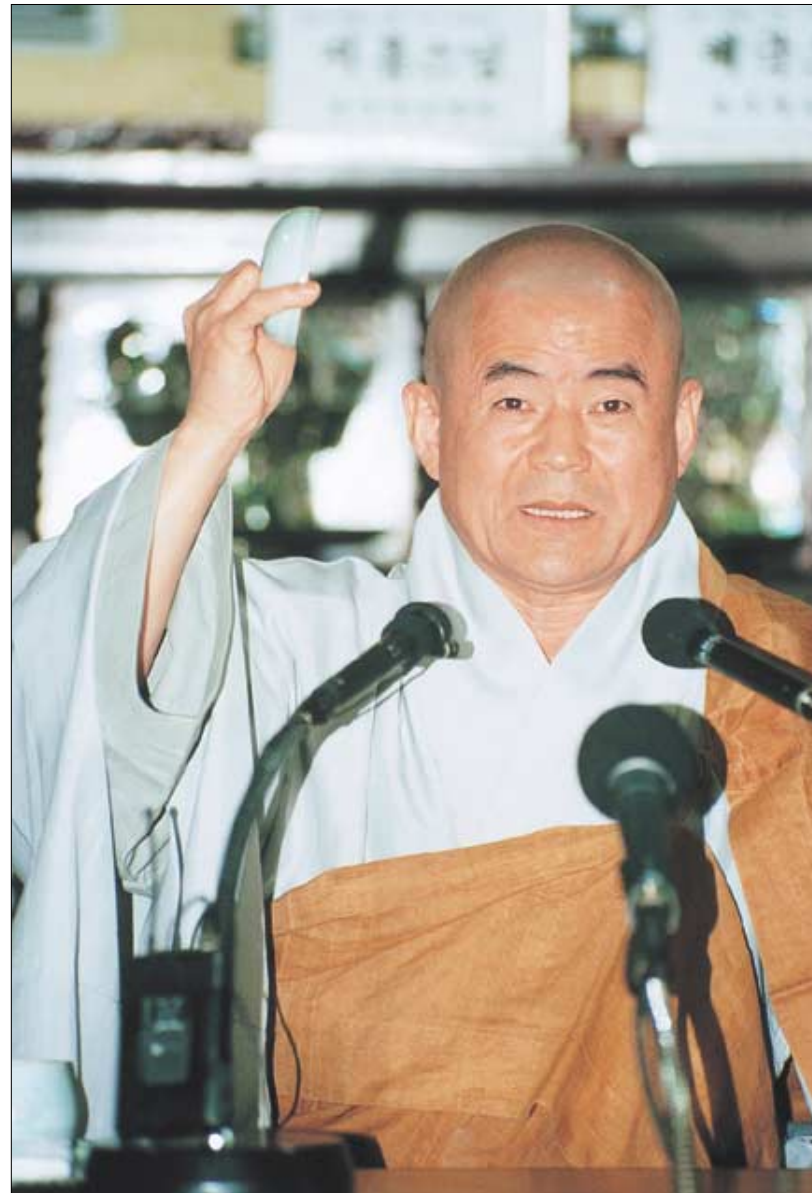
회두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나와 벽이 허물어져버린 상태를 보여준 것이니까 내가 찾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대상화시켜 버린 것이고 찾으려고 하는 놈과 찾아야 할 대상을 들로 나눠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얻을 수가 없는거예요. 이 상태로는 백날이 가도 수행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통이를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대중)

아니라면 내가 가져가서 밭도 짓게 하고 더러는 팔아서 불사에도 보태고 할테니까, 여러분 몸통이가 여러분 꺼려면 마음대로 되어야 하죠. 그런데 말대로 됩니까? 안되죠?

"예." (대중)

앞으로 여러분 꺼려고 하지를 말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것이라고 하는 내 몸통이도 마음대로 안되는데 어떻게 가족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겠느냐. 이 세상이 마음대로 되고 내 가족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거든 마음을 먼저 길들여라"고 했습니다. 네가 주인이 되면 진실되게 살게 된다



■ 혜국(慧國) 스님

1961년 13세 때 해인사에서 입타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범어사에서 혜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은 후 대승사, 불암사, 월봉사 등에서 정진했다. 69년 해인사에서 10만배 정진을 마친 뒤 팔만대장경각에서 오른손 세 손가락을 연비하기도 했다. 제주도 남극선원에 무문관(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하는 선방)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조계종 수행가풍을 잇는데 임의를 담당해 왔다. 현재 조계종 선원장회의 회장, 총주 석종사 금봉선원 선원장을 맡아 후학 지도에 전념하고 있다. 혜국 스님은 총주 석종사불사를 마무리하고 5월 15일 낙성법회를 연다.

## 육법등 (六法燈)



###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활용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전등을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장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주관 및 대리점 모집**

##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편지

### 신제품 식물성 양초

실용신안특허 0293571호

###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저희 삼환양초에서 식물성 양초를 개발(실용신안특허) 공급합니다. 지금까지 양초는 석유에서 추출한 파라핀 왁스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양초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그을음, 냄새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고심하던차, 동남아 모처에서 생산하는 팜(식물성 아자열매)왁스로 양초를 만들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 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내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 수 있도록 삼환양초 가족일동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스님, 불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기다립니다.

###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여 양초도 선별하며 사용할 때입니다.'

#### ◆ 선진국 소비자들의 양초선별 방법

1. 심지가 면사로 되어있는지<국내제품 면사로 제조>
2. 원료가 식물성 인가

※ 미국, 구라피 등지에서는 콩, 옥수수 등 식물성으로 만든 양초 선별사용



### ▶ 식물성 양초의 특징

- 그을음이 없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을 준다.
- 양초 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적다. (거의 없음)
- 양초 연소시간이 일반양초보다 약 20 ~ 30% 길어진다.



- ① 전사지양초(오향이, 용, 반야심경) 지름 7.5cm x 45cm
- ② 양용(용이마주보고 있음) 지름 8.3cm x 30cm
- ③ (전사지)용 - 지름 9.2cm x 31cm
- ④ (전사지)반야심경 - 지름 9.2cm x 31cm



- ⑤ 원기종 양초 지름 7.4cm x 29cm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용, 호랑이, 무지개, 금박, 오향이, 용

상기제품외 모든 양초를 만드는 **삼환종합양초** TEL.031)766-0242~3 FAX 031)766-0233  
제품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제품설명서를 무료로 우송하여 드립니다.

조계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4월18일-조계사 대웅전)

▲ 출가를 하고 싶었으나 세련에 얽매어 출가를 하지 못한 불자입니다. 지금도 출가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출가하지 못한 우리 재가불자들은 어떠한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까?  
- 출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몸뚱이는 출가를 했지만 마음은 출가 못한 사람도 있고, 몸뚱이는 출가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출가했다고 생각하고 수행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뚱이를 출가 못했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출가를 했으니, 진실된 수행자의 길을 걸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세요. 참선법을 출가의 계로 삼고 화두를 스승으로 삼아 공부해 간다면 이미 출가한 사람과 다를 없습니니다.

▲ '뜯았의 잣나무'가 화두가 아니라 그 이전의 뜻, 즉 참생각이 화두라고 하셨는데 참생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화두라고 하는 것은 당처를 말합니다. 직전 자리를 화두라고 합니다. 참생각이라고 하면 거기에겐 거짓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말에 떨어지지 말고 그 뜻에 착안을 하세요.

‘묻고 답하기’ 현장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전백수자' 속에 숨겨진 뜻을 화두라고 했습니다. 조주 스님은 이미 뜯았의 잣나무라는 말과 그 뜻이 들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깨달았을 때 화두를 바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깨닫기 이전에 내가 설명을 한다면 나는 허물을 쌓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말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니다.

공부할때 새 경계 나타나는 건 내 몸안에 비쳐진 그림자일 뿐

화두는 나와 남 또는 주와 객이 둘로 나뉘지 않는 근본자리입니다. 장님에게 아무리 허공을 설명해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허공을 보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장님이 눈을 뜨게 만들어야겠지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설명이 붙을 수 없는 자리를 화두라고 합니다. 장님에게 허공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줄수록 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 참선을 하다보면 전혀 새로운 경계가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참선을 하다보면 부처님이 환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낙숫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아주 맑아져 빗물기 소리 하나하나가 달리 들리기도 합니다. 그때쯤 되면 물체와 광명이 버거기도 합니다. 내 몸속에 있는 망상변뇌가 어느 정도 바꾸어졌다는 말이에요. 몸속의 망상을 화두로 바꾼 만큼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예요. 이때 보이는 것은 내 몸 안에서 비쳐진 그림자일 뿐입니다. 나한테 없는 것은 삼라만상에 없어요.

극장에서 영화보는 것을 비유로 들어 보면, 우리는 화면에 비친 모습에 웃고 웃고 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필름에서 비쳐진 그림자를 보고 웃고 웃거든요. 공부하다가 비친 것도 화면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에요. '아 이것도 그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 때 더욱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경계든지 내 마음의 그림자니까 경계는 보지 마세요.

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화두를 들고 싶어도 내 몸뚱이 속에 있는 번뇌욕망이 (화두)가 들어오게 거만히 놔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번뇌망상과 화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망상변뇌가 일어나면 번뇌망상을 화두로 바꾸는 것이로구나, 즉 번뇌망상이라는 지능을 가지고 화두라고 하는 부처를 조성하는 것이니까, 참선법이 라고 하는 것은 이 번뇌망상을 부처로 만드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화두를 정말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분명한 것이라면 화두 수행에 나를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두 참선법은 일생을 바칠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문제는 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참나를 찾아 나서는데 무슨 하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인은 씨앗 심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증생은 결과만 얻으려고 합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째서' 하고 의심을 품을 때 그것이 씨앗 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부처가 된 것입니다. 이는 화두가 작용이 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의심이 가고 잘못될 것이 없는 것처럼 이유를 붙일 필요도 없습니니다.

나뉘던 안에 찌꺼기가 가라앉습니다. 이때는 지금 까지 내 속에 있던 찌꺼기가 보입니까, 안보입니까? "보여요." (대중)  
망상변뇌는 바깥에서 들어온게 아니라 내 속에 있으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화두는 이 망상변뇌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가라앉게 해주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망상변뇌를 화두로 바꾸는 이게 공부입니다. 이걸 딱딱 맞아 떨어지는 일이라고요.

화두 드는 수행자는 왜 뜯았에 잣나무라고 했는지 조사관을 타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화두 조사관을 타파하고 도를 깨닫는 길 목적이요 해야지, 하는 도중에 뭐가 나타나거나 뭐가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화두를 등불·스승으로 삼고 화두에 의지해서 망상변뇌에 속지 않고 살아가 보세요.

이 좋은 참선법을 만났으니 화두에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씨앗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박병영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여러분, 몸뚱이가 여러분 거러면 마음대로 돼야 하죠. 맘대로 된다가, 안되죠?” 예.

참선은 번뇌망상을 부처로 만드는 작업

화두하는 그 시간 만큼은 내가 나와 같이 춤을 추는 시간이요 부처와 같이 있는 시간이구나.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없애버리고 화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망상을 가지고 '어째서' '왜' 하고 살펴다가 조금 더 나아가면 어째서도 없애지고 왜도 없애지게 됩니다. 오로지 조주 스님의 의정만 남게 된다 이 말이에요.

“법문, 테이프로 들으세요”

혜국 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2월 15일-5월 9일 진행되는 선원장 초청법회의 법문을 테이프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조계사(02-732-2115), 여시아문(02-737-8881)  
법회 동영상 중계 www.jogyesa.org  
www.buddhanews.com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기도 영험도량에 범비 오는 동해사 삼사순례

동해사 비 오는 곳

-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5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100일기도 접수안내

꼭 소원이 간절하신분 접수하여 한가지 소원이라도 이루어보세요.

◇ 기도시간 : 4:00시 ~ 5:30분  
오전 10시 ~ 11시 20분, 오후 5시-6시  
◇ 기 도 비 : 10만원 (총합 331036-51-062531 동해사)

삼보전에 귀의 하옵고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범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는 동해사. 범비의 자비광명으로 화신하여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계신곳 동해사에 오셔서 순례도 하시고 마흔 두가지 중 어떤 소원도 이룰 수 있는 사십이 수주 진언의 기도를 하시고저 하는일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해사 주지 혜명 합장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033-672-2900

방생 집전스님이 필요한 불교단체는 주지스님 집전 가능함.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견전지용 초. 정사소롱 및 손잡이대

등 간 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정품)

- ▶ 불계 고수전구, 인지전구
- ▶ 종류 :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밀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6개) 특 월라멘트로 빛이 월등이 밝고 열면 요격가 있다.

불제 견전지용 초

- ▶ 정사소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탐들이, 방쟁) 등 바람이 불어도 깨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등에 적당합니다. (견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귀일문의 (031) 986-0277-8    귀일문의 (02) 2266-2634 (02) 2263-2638  
 귀일문의 (032) 582-6235-6    귀일문의 01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